

다니엘서 - 번호 99

말세와 하나님의 심판: 드러나는 예언적 통찰

Jeff Pippenger

2024-02-29

“마지막 때”는 첫째 천사 운동에서 심판의 개시가 선포됨을, 또 셋째 천사 운동에서 심판의 종결이 선포됨을 가리킨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과거에도, 또한 지금도 일으켜 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되려면 그 심판을 이해해야 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주된 특징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마지막 때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옛 선지자들 각자는 자기 시대보다 우리 시대를 위해 더 많이 말했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일어났으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선택된 메시지, 3권, 338쪽.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하므로, 그들의 예언은 모두 같은 모습을 보여 주며, 그 모습은 말세, 곧 심판의 날들에 관한 것이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제어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4:32, 33.

에스겔의 환상은 8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환상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 곧 말세의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가리킨다. 에스겔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결론에 이르는 때에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드러낸다. 한 부류는 태양에게 절하는 스물다섯 명의 장로들로 대표되지만, 교회와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11장에서 에스겔의 환상은 태양에게 절하는 그 스물다섯 사람에게 대한 징벌의 묘사를 계속한다.

또한 영이 나를 들어 동쪽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보니 그 문 어귀에 스물다섯 사람이 있었고, 그들 중에 백성의 고관들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이 성에서 악을 꾀하며 악한 계락을 내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을 지으자; 이 성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예언하라, 인자야. 그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에서 죽임당한 자를 많게 하였고 그 거리들을 죽임당한 자로 가득 채웠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 가운데 두었던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이 곧 고기요 이 성은 가마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은즉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리라. 에스겔 11:1-9.

예루살렘은 '가마솥'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가마솥(즉 솥)에서 익혀지는 '고기'로 비유된다. 14만 4천의 인침의 때에(화이트 자매는 에스겔 9장의 인침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침과 같다고 말한다), 손에 멸하는 무기를 든 천사들에 의해 집행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는 악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거된다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영적 예루살렘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산들 위에 기치로 높이 들려질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들릴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오리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2:2, 3.

일요일 법령 때 예루살렘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결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을 제거하여 빌라델비아 재림교인들만 남게 하는 것이다. 그때 법적 법인 구조는 종결되는데, 1863년에 마련된 법적 체제에서 미국 정부가 통제 주체이기 때문이며, 미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게 되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법인 구조는 법적으로 해산되거나, 어쩌면 그 이름이 법적으로 '일요일 재림교회'와 비슷한 정도로 변경될지도 모른다.

멸하는 천사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악인들이 가마에서 제거될 때, 라오디게아 재림교회는 끝나고, 빌라델비아 운동이 기치로 높이 들린 영적 예루살렘이 된다. 미가는 이사야가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옛 장로들에게 말하며, 질문을 통해 그들이 "심판"을 알았어야 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돌아보심의 때를 알았어야 했다.

내가 이르되, 야곱의 수령들아, 이스라엘 집의 고관들아, 청하노니 들으라. 너희가 공의를 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그들에게서 가족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떼어내는 자들이다. 또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족을 벗기며, 그들의 뼈를 꺾고 토막 내어, 냄비에 넣을 고기처럼, 가마 속의 고기처럼 만드는구나. 미가 3:1-3.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의 백성이 '심판을 알도록' 뜻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뜻하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요소와 특정한 이정표들을 지닌 점진적인 역사이다. 그것은 1798년에 시작되어 천년기의 끝까지 계속되는 예언적 기간이다. 심판은 조사적이면서 집행적이다. 그것은 지구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될 뿐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게도 시행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이해해야 한다'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에스겔 8장의 네 가지로 점점 심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상징되는, 점차 격화되는 반역의 네 세대가 보여 주는 '끊임없는 배도'의 절정을 대표한다고 밝힌다. 예레미야는 그 장로들이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를 "경배"하므로 영적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예레미야는 “백성이 여호와와 심판을 알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고관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고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만상 앞에 펼쳐 놓을 것이라. 그것들은 거두어 모아지지도 아니하며 묻히지도 아니하고, 지면 위에서 분토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모든 곳에서 남아 있는 이 악한 족속의 남은 자들 모두는 생명보다 죽음을 택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또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돌이켜 떠나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끊임없는 배반으로 물러갔느냐? 그들은 속임을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이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자기의 악을 뉘우치며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말하지 아니하며, 각기 자기 길로 달려가기를, 말이 전쟁으로 돌진함같이 하였도다. 공중의 황새도 그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도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 심판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와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참으로 그가 그것을 헛되게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붓은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당황하여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 가운데 무슨 지혜가 있느냐? 예레미야 8:1-9.

5장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규정한다.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며, 이제 보고, 알아보고, 그 광장들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사람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 맹세하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소멸하셨으나 그들은 징계를 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만들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 틀림없이 이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와 길도,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5:1-4.

말세의 라오디게아적 재림교 안에서, 화이트 자매가 그것이 “재림교 백성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밝힌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여호와와 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한다.” 다음 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길”이 “옛 길들”임을 밝히지만, 미련한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은 그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거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한다. “나팔”은 심판의 상징인데, 물론 미련한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라들이 들으라,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의 생각이 맺은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율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버렸음이라. 예레미야 6:16-19.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과, "늦은비"의 "쉼"을 찾을 수 있는 "옛 길들"에서 "걷는" 일을 거부한 "회중" 위에 내려지는 "재앙"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그 "회중"이 "그의 율법을 거절"할 때 일어난다.

엘리야의 삼중적 적용은 임박한 일요일법령으로 시작되는 집행심판의 때에 사자와 운동의 사역을 식별한다. 엘리야의 삼중적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자의 삼중적 적용이다. 길을 준비하는 사자의 삼중적 적용은 조사심판의 때에 사자와 운동의 사역을 식별한다. 길을 준비하는 사자와 엘리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삼중적 적용이며, 로마의 삼중적 적용과 바벨론의 몰락의 삼중적 적용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구별점을 지니고 있다.

엘리야의 세 차례 적용과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세 차례 적용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사자와 그 사자의 기별에 연합하는 운동을 통해 이루시는,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심판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 그 두 사역은 상징들 사이에 중첩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두 심판의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은 현대 바벨론의 삼중 연합에 대한 집행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역은 조사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케 함과 관련되어 있다. 말라기 3장은 2장의 마지막 절로 도입된다.

너희가 너희 말로 여호와를 피곤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피곤하게 하였나이까? 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하며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때에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며,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도 임하리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잣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정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로 앉아서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정련하여 정결하게 하며,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이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예전의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2:17-3:4.

마지막 때에, 말라기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1888년의 반역을 고집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신다. 1888년의 반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예표되었으며, 고라의 반역에서의 교리적 쟁점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의로운가 하는 것이었다.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자손이었다—사람들을 규합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회중의 지도자들, 곧 회중 가운데 명성이 있는 이백오십 명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모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지나치게 스스로 떠맡았구나. 온 회중이,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기 16:1-3.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1957년의 반역에 매달리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지치셨다. 그것은 단지 1888년의 반역을 공식 성명으로 옮겨 놓은 표출에 불과하다. 『Questions on Doctrine』라는 책은 1888년의 반역을 공식화했는데, 그것은 1888년 회의에 머물러 고라의 반역 역사의 반복을 기록해야 한다고 화이트 자매에게 지시한 천사의 증언에 따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반복된 것이었다. 그 반역에서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를 대적하여, 명망 있는 이백오십 명이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 모였다.

에스겔 8장에서 해에게 절하는 스물다섯 사람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서 분향한 이백오십 명의 십일조, 곧 십분의 일을 상징하며, 그 반역은 1888년 반역의 지도자들을 예표하였고, 그들의 교리적 반역은 1957년에 'Questions on Doctrine'이라는 책의 출판으로 공식화되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십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리라고 선고하신 '심판'을 거부한 것이었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운동은 1856년에 제시된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거절한 뒤,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해 동안 광야를 방황하라는 심판이 내려졌고, 1863년에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했다. 1888년의 반역에서도 그들은 존스와 왜거너 장로들이 전한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여전히 받아들일려 하지 않았다.

1888년에 반역한 이들은 존스와 왜거너 장로의 영적 권위만이 아니라 여선지자 엘렌 화잇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까지도 거부했는데, 이는 그들이 전체 회중이 동일하게 거룩하다는 생각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1863년에 그들은 베엘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먹기 위해 다시 돌아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고라의 반역으로 대표되는 구원의 정의를 받아들였으며, 이어 그 거짓 교리를 Questions on Doctrine라는 책에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그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거짓된 정의다.

1863년의 반역은 하박국의 두 판에 반영되었던 밀러의 보석들을 거절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하박국 2장에서 1절의 '논쟁'은 결국 지체된 메시지에 대한 불일치 속에서 드러나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낳는다.

보라, 그의 영혼이 높아져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하박국 2장의 '논쟁'에서 '의인'의 '믿음'은 판에 분명히 기록된 '묵시'에 근거했다. 1863년의 반역에서, 판에 기록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가 더 이상 '의인'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863년의 반역은 궁극적으로 1957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에 대한 거짓된 정의를 확립하게 될 반역의 첫 씨앗이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주께서는 크신 자비로 와그너와 존스 장로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높이 들려진 구주,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을 세상 앞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별은 보증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칭의를 제시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고 백성을 초청하였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다. 그들은 그분의 신성한 인격과 그분의 공로, 그리고 인류 가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졌으니, 이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자신의 의라는 값비할 수 없는 선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고, 성령의 큰 부으심이 동반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이 때를 위한 진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최후의 큰 시험에 다가갈수록 큰 소리로, 곧 점점 더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1888년 자료, 1710.

시험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죄를 사하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됨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선택된 기별, 1권, 362쪽.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리게 되어 있다. 한 능력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온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4월 21일.